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요한복음 8:1-12)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 율법에 이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라고 물었다. 예수님은 엎드려 땅에 무언가를 쓰시다가 재촉하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대답하시자, 모인 사람들은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모두 돌아간다. 여인만 남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용서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시 죄 짓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첫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씀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 뿐 아니라, 정죄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이다. 세상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남을 정죄하며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기에, 죄 용서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문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의 용서를 받고 남을 용서하며 산다. 그리고 형제가 범죄하면 정죄하지 않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며, 자신도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려 조심한다.

둘째,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문자적 의미를 넘어 예수님께서 여인을 용서하신다는 것은, 여인의 받을 죄의 형벌, 죄로 인한 수치, 조롱, 모멸감을 대신 감당하시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양손과 양 발에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군중 앞에서 조롱을 당하셨고,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수치를 당하셨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은 여인과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신 대가라고 말했다. 사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용서에 담긴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은 용서 받고,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 한다.

셋째,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라

이 말씀은 용서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지만, 끝은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다. 죄의 결과 무서움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 심판을 받는다. 세상에서 드러나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숨겨서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용서받은 기회를 잃어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용서 받은 사람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한 삶은 의지적 결단과 수고로 죄와 싸우는 삶이다. 깨어 기도하여 싸우고, 연약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좇아 살아야 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분별하여 잘나내며 살아야 한다.(엡6:17)

히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죄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리고 연약하며 넘어질 때, 영혼이 죄에 둔감해 진다고 느낄 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악의 자리를 떠나, 다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자녀의 삶을 살아 나가야 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요한복음 8:1-12)

1. 마음으로 만나기 (Welcome)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경배와 찬양(Worship) 찬송가304장(통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도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2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 말씀 나누기 (Word) : 요8:1-12 말씀을 읽고 셀리더가 말씀을 요약합니다.

1)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사람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신22:22)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던 진퇴양난에 빠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3)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용서’는 어떤 것입니까?

4) 죄사함을 받은 성도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5) 이번 주 설교를 통해 깨달은 것과 적용하여 실천할 것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

4.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Work of Prayer)

1) 참석한 셀원들의 기도제목 나누기

2)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 담임목사님, 중직자, 셀리더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리바이벌 유럽의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 코로나 시대에도 감당해야 사역을 이루어갈 지혜를 더해주소서